

# 하나님알기반

교재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 하나님알기반

## 교재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 목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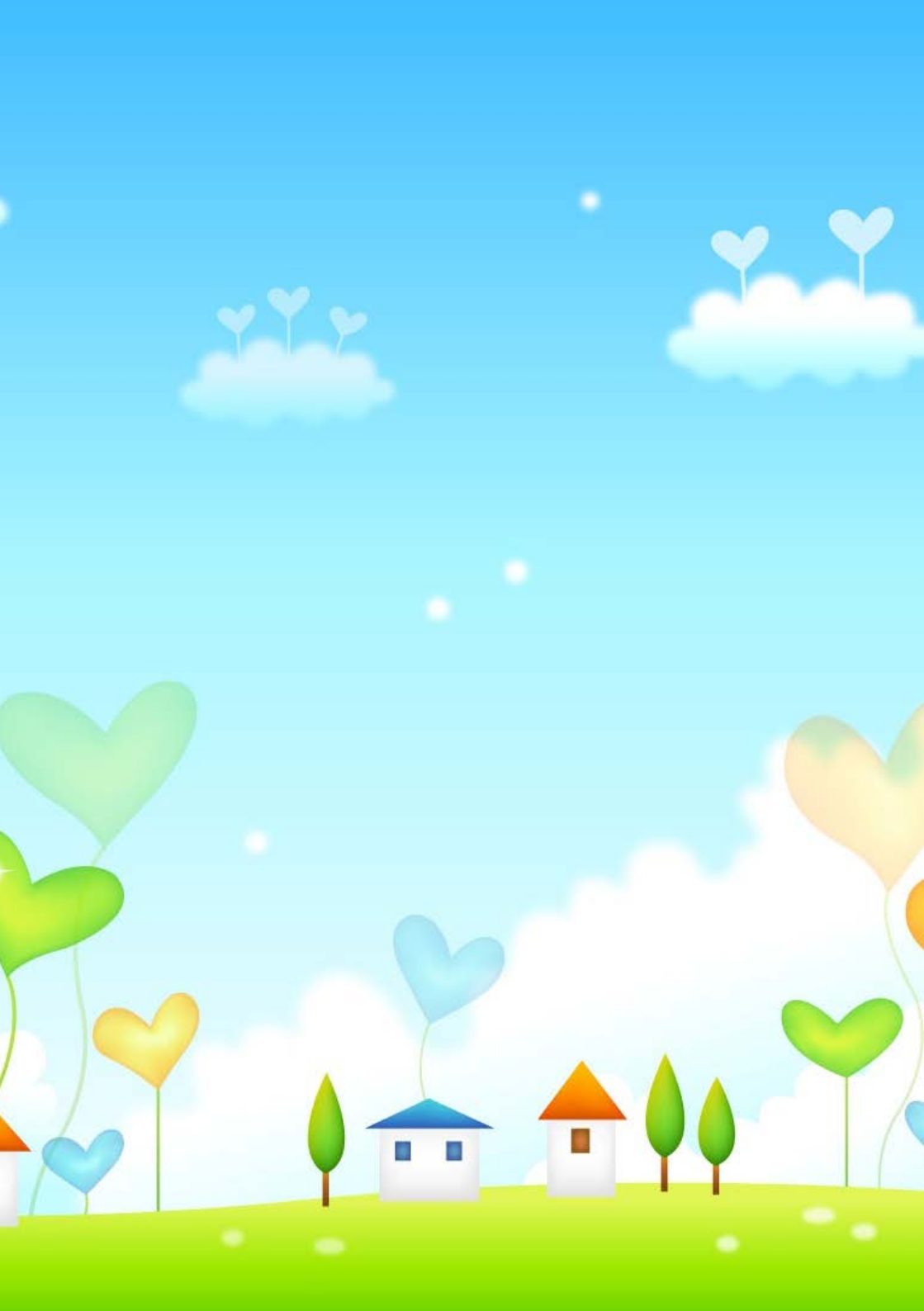




제 1 장 하나님 알기 \_ 7

제 2 장 하나님과 동행하기 \_ 24

제 3 장 하나님의 구속계획 알기 \_ 49





# 1 장

/

## 하나님 알기

# 제 1 장 하나님 알기

## 훈련 목적

- \* 언약궤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 \* 언약궤기도를 직접 드려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나타난 증상을 느껴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삶속에 나타난 변화를 깨닫자

##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매일 방언기도를 드린다
- \* 국성연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아버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 육신의 부모로부터 DNA를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아버지로부터는 영을 지음 받았습니다(창 1:26).

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십니다.

-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호천사를 우리 곁에 있게 하십니다(마 18:10).
- 하나님은 우리의 갈길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갈길을 결정하였을지라도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잠 16:9).
- 하나님은 우리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시 23:1).
-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시 121:4-8).

### 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펼치기만 하면 느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거하십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펼쳐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 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문을 열길 원하 십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결코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시 23:1] [다윗의 시] 여호와是我的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시 121:6]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로다 [시 121: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 121: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않으십니다.

- 우리가 직접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  
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비  
로소 영이 열리게 됩니다(계 3:20).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  
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 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결코 하  
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지 않으십  
니다.
-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찾지 않으  
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들  
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기다  
릴 뿐이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않으시는가?"라고 불평의 말  
을 합니다.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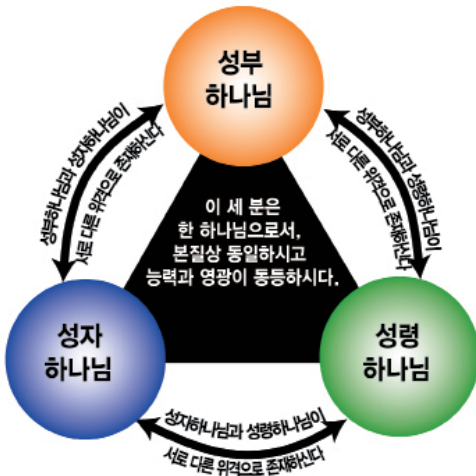
-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요 14:14). 그렇

[요 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  
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  
리라

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마 7:7-8).

-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입니다(약 4:2-3).
-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거라고 마음에 의심하는 자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약 1:6-8).

## 2. 삼위일체 하나님



국제성경연구원(www.visitingmission.com)

[마 7: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8]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 4: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약 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약 1: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약 1: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가. 삼위일체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 삼위일체하나님은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세 분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 <엘로힘>은 복수형 남성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창 1:26). '우리'라는 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한 것입니다.

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마 3:16-17).

- 하나님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또한 성령하나님은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둘기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 28:19).

- 하나님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것 중 하나는 세 분의 하나님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 성부하나님은 성자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자예수님은 성령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롬 8:16).
-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요 14:16-17).
-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밝혔습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 14: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 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다(행 7:55).

마. 성부하나님과 성자하나님과 성령하나님의 신성은 모두 동일합니다.

- 가장 권위있는 신조인 '니케아신조 (AD325년)'에서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성자의 신성이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다."
- 니케아신조와 함께 가장 권위있는 또 다른 신조인 '콘스탄티노플 (AD381년)'은 니케아신조에다가 성령님의 신성을 추가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가 예배와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다."

[행 7:55]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 3.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하나이십니다.

가.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와 하나되심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께서 하나라는 사실은 성부하나님 안에 성자예수님이 거하시고 또한 성자예수님 안에 성부하나님이 거하심을 의미합니다(요 10:30).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요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요 14:7)"고 언급하셨습니다.

나. 성자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요 14:10).

다.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께서 하나가 되심은 성자예수님과 성령하나님과과의 관계 또한 하나가 됨을 말해줍니다.

- 성자예수님은 성령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마 4:1).
- 성령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마 1:8). 일생동안 성령하나님 안에 거하셨으며 성령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라. 예수님은 우리들도 삼위일체하나님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요 17:21).

-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요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 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마 4: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요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 4.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 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4:16).
-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요일 4:20).

[요일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 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 우리 인간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거룩한 형상이었습니다(창 1:26).
-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거룩한 모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습으로 사셨습니다.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히 4:15).

-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처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엡 4:13).

#### 다.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갈 2:20).
-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들의 고난을 대신하신 것이었습니다(사 53:4-5).
- 우리도 주님처럼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라. 겸손의 하나님입니다.

- 주님은 이 세상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가장 비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빌 2:6-7, 눅 2:7).
-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이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고후 8:9).

[히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눅 2:7]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

-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는 하인들이나 하는 추한 것이었습니다(요 13:4-5).
-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마 23:12).

#### 마. 온유의 하나님이십니다.

- 예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 11:29).
- <프라위스>라는 말은 '온유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의 <프뤼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온유한 마음이 생기지 못할 것입니다.
-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마 12:19-20).
- 주님은 죄인들에게 온유하셨습니다 (눅 7:34).
- 주님은 의인보다 오히려 죄인을 찾으셨습니다(막 2:17).
-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

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13: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 13: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마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2:19]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 12: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눅 7:34]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 회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리도 닦아야겠습니다.

바. 순종의 하나님입니다.

-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 주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대로 가르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습니다(요 5:19, 요 8:28, 요 12:49).
-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마 26:39).
-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7:21-23).

사. 기도의 하나님입니다.

-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 주님은 항상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막 1:35).
- 주님은 우리들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은

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마 26: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 7: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

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 6:6).

## 5.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 가.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 보혜사는 '변호자', '위로자'란 뜻입니다.
-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요청하셨습니다(요 14:16).
-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입니다. '보혜사'란 뜻은 '변호사', '중재자', '위로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법정 용어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울 사람을 지목하여 중재자로 삼을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 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 같은 보혜사이십니다.

-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막 1:35] 새벽 오하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십니다(요 14:16).

- '또 다른'이라는 말은 똑 같은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똑 같은 두 개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또 다른'에 사용된 헬라어 <알로스>는 똑 같은 두 개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헤테로스>는 서로 다른 것 중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는 곧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과 똑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 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요일 4:15).
-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고전 3:16).
-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계 22:17).

#### 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일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계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

-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롬 8:26).
-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면 참으로 고마운 것인데 성령님께서 나의 중보기도자가 되심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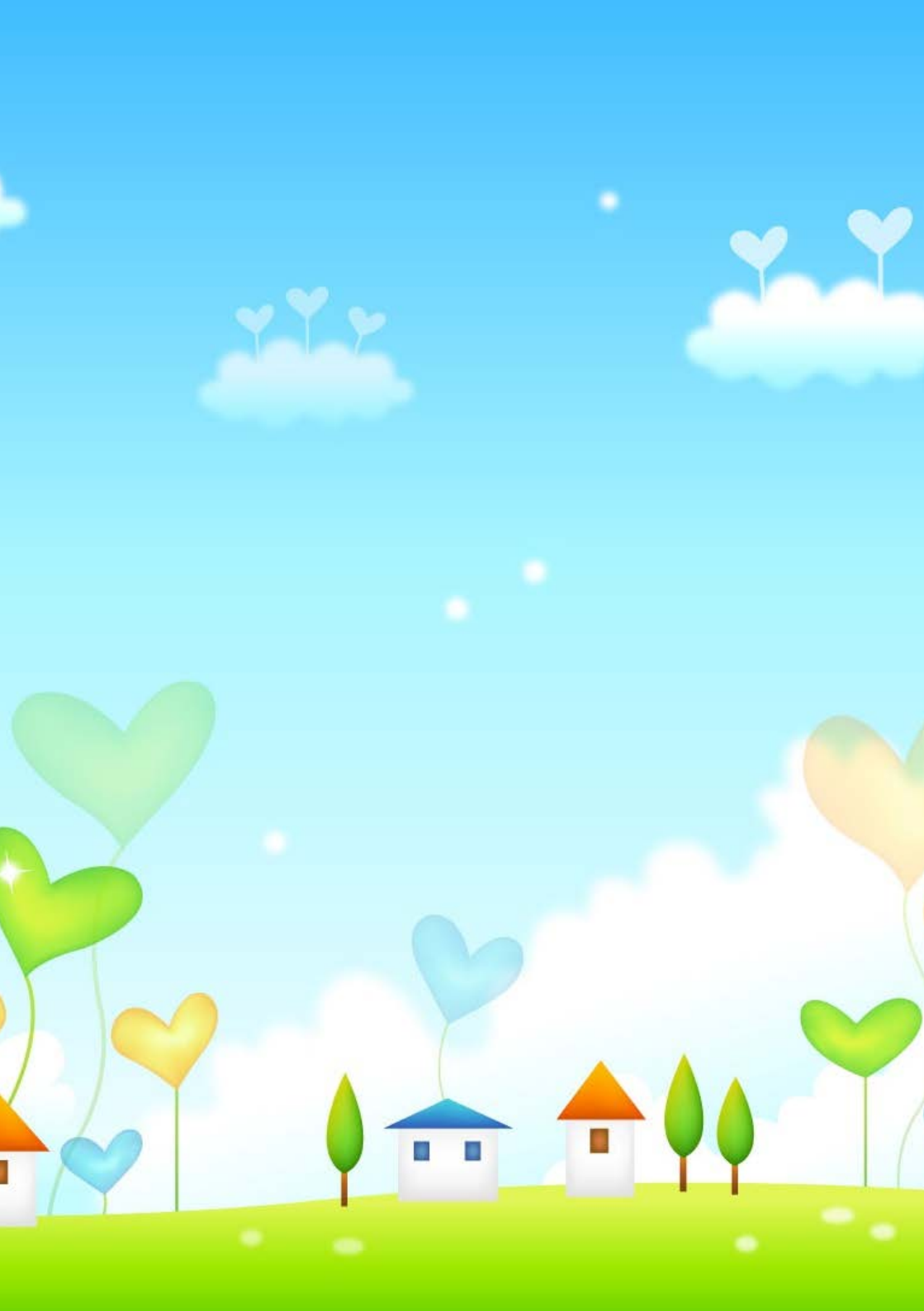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 마.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고전 12:8-10, 막 16:17-18).
-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참경배자의 삶을 만들어줍니다(갈 5:22-23).

[고전 12:8]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전 12:9]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고전 12:10]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2 장

/

# 하나님과 동행하기

## 제2장 하나님 동행하기

---

### 훈련 목적

- \* 언약궤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 \* 언약궤기도를 직접 드려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나타난 증상을 느껴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삶속에 나타난 변화를 깨닫자

### 한주간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매일 방언기도를 드린다
- \* 국성연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1.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 일방적인 사랑은 쌍방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 눅 15장의 '큰 아들'이 바로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

님과 일대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  
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  
십니다.

- 하나님과 단둘이 사랑을 나누기 위  
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는 마음  
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 그럴 때 일대일의 사랑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계 3:20).

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열리게 됩니다.

-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주  
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  
다.
-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  
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영의 영  
역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 우  
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영역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  
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 2.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나요?

### 가. 먼저 영의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 영의 영역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골방기도'가 필요합니다.
- 골방기도는 '성막기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막상 골방기도를 드리려 해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막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골방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성막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영역을 찾게 해 줍니다.

### 나. 성막기도를 잘 드리는 방법

- 먼저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실제로 '골방'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밀폐된 작은 공간(다락방, 옷장, 화장실, 작은 방)을 골방으로 사용하십시오. 자동차 안에서 해도 좋습니다.
- 골방으로 정한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뿌릴 때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실

제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믿음으로 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보혈이 뿌려질 때에 골방이 영적인 장소로 변화됩니다. 마치 교회 예배당이 성스러운 장소인 것처럼 보혈을 통해 골방이 영적인 기도처소가 될 것입니다.

-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누는 게 가장 편하면 누우십시오. 하지만 눕게 되면 졸음이 빨리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졸음이 오지 않는 자세가 좋습니다. 방석이나 이불 같은 편한한 것을 밑에 깔고서 앉으십시오. 다리를 편하게 펴십시오. 의자가 편하면 의자를 골방에 갖다 놓으십시오. 최대한 편안해야 합니다.
- 모든 기도는 세파크 방법을 사용합니다. 헌신기도도 세파크, 회개기도도 세파크, 간구기도도 세파크, 방언기도도 세파크로 합니다. 세파크는 '세계', '빠르게', '크게'의 약자입니다.
- 성막기도의 순서를 암기하십시오. <성막문 - 번제단 - 물두멍 - 진설병 - 정금등대 - 분향단 - 지성소>

순서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 성막문에서는 보혈을 뿌립니다. 번제단에서는 헌신기도를 드립니다. 물두멍에서는 회개기도를 드립니다. 진설병에서는 간구기도를 드립니다. 정금등대에서는 초청기도를 드립니다. 분향단에서는 방언기도를 드립니다.
- 지성소에서는 영광체험기도를 드리는데 영광체험의 기도는 곧 영의 기도입니다. 지성소 이전의 기도과정은 지성소에서의 영의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한 준비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서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 3. 영의 기도를 통한 영 활성화하기

가. 지성소기도(언약궤기도)의 순서를 먼저 숙지합니다.

- 지성소기도는 전체 다섯 부분으로 나뉘집니다.
- 첫번째는 방언기도입니다.

# 언약궤기도

(1단계) 방언기도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옴  
(방언은 천국을 여는 열쇠이다)

(2단계)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눔  
(이때 음성과 환상이 열리게 된다)

(3단계) 속죄소 앞에서 보혈을 뿌린다  
(보혈이 없이는 그룹을 통과할 수 없다)



(4단계)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5단계) 세가지 성물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  
(세가지 성물은 천국의 모든 것이다)



(돌판)  
언약(소망)을 상징



(씩난 지팡이)  
빈움을 상징함



(만나 항아리)  
사랑을 상징함

- 두번째는 지성소에서 주님과 동행입니다.
- 세번째는 속죄소에서 영적으로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 네번째는 언약궤에서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 다섯번째는 언약궤의 세가지 성물을 체험합니다.

나. 지성소기도(언약궤기도)의 다섯 단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야만 합니다. 가급적이면 매일 지성소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 지성소기도에서는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뇌가 육체의 움직임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영적인 집중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 세상의 음악소리를 끄십시오. 경배와찬양 소리도 끄십시오. 모든 세상의 소리를 끄는 것이 영적으로 집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때때로 모기가 날라다니는 소리, 파리소리, 물소리, 전류가 흐르는 소리, 얼굴 어느 부위가 간지러운 느낌, 머리카락에 뭐가 붙은 느낌, 간질거리는 느낌 등이 느껴질 것입니

다. 이런 증상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눈을 뜨지 마십시오.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눈을 뜨면 바퀴벌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모두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 시간에 쫓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짜장면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략적으로 지성소기도(언약궤기도)는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니 10분 안에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큰 일 납니다.

다. 지성소기도(언약궤기도)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해야 합니다.

- 모든 지성소에서의 기도는 성령님과 의 동행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혼자서 드러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물론 지성소기도(언약궤기도)를 통

해 환상과 음성이 열려지게 됩니다.  
비록 환상과 음성이 안 열려졌지만  
열심히 지성소기도를 드리게 되면  
금방 음성과 환상이 열려지게 될 것  
입니다.

- 혼자서 영의기도(지성소기도, 언약  
궤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드리다가  
이내 곧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가급적 성막기도반에  
접수하셔서 반원들과 함께 기도하  
기 바랍니다.

#### 4. 지성소기도(언약궤기도) 구체적인 내용

가. 지성소 기도는 분향단에서 방언기도로  
부터 시작됩니다.

- 방언기도는 세파크로 하십시오. 최  
소한 2분 이상 하십시오. 숨을 크게  
마시고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세파  
크로 기도하면 영의 영역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
- 방언기도를 한 후에 방언찬양의 시  
간을 가지십시오. 방언찬양을 계속

하다보면 보다 높은 영의 찬양의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 이러한 찬양의 순서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 물론 방언기도하고 방언찬양할 때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는 것입니다만 찬양 이후의 시간에는 더욱 성령님의 음성이 선명해집니다.
- 성령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혹은 "무엇이 들리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보고 들려지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에 한 순간에 음성과 환상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골고다 언덕이 보여지기도 하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직접 흘리신 보혈을 만져보기도 하고 주님의 찢기어린 눈동자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직접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환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환상은 실제보다 더욱 선명하기도 하며 실제보다 더욱 현실감이 있기도 합니다. 환상이지만 마치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그동안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믿음생활이었는데 환상과 음성이 열리고 놀라운 체험을 통해 믿음이 현실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 때때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때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에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때 천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늘 똑같은 장면만 보여진다면 어찌면 당신의 영이 다소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과 함께 혼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성소에서의 음성환상이 열려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속죄소에서 다시 한번 보혈을 뿌리게 됩니다.

- 속죄소에서 보혈을 뿌릴 때는 성막문에서 보혈을 뿌리는 것과는 다름

니다. 성막문에서는 직접 보혈을 뿌렸지만 속죄소에서는 오직 영으로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 속죄소에서 보혈을 뿌리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때로는 거대한 십자가가 내 앞에 서 있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으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을 뿐인데 실제로 피가 떨어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양동이채 피가 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혈의 홍수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보혈이 뿌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보혈이 뿌려진다고 해서 혼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 혼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영의 기도는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 영적인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도 혼적인 생각을 가미하지 마십시오. 쫓겨 납니다.

라. 속죄소에서 보혈이 뿌려진 후에는 언약

### 궤로 들어갑니다.

- 속죄소에서 보혈이 뿌려질 때 속죄소의 두 그룹이 길을 내어주빈다. 만일 당신이 속죄소에서 보혈을 뿌리지 않았다면 결코 두 그룹이 당신으로 하여금 언약궤로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 언약궤로 들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여러가지이며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고속도로처럼 뺑하니 풀려있듯이 보여지는데 어떤 때는 하늘 어디론가 쭉 올라가는 느낌도 받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장소가 변화되는 느낌도 받습니다. 무수히 많고 다양한 모습으로 언약궤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마. 언약궤에서 영광을 체험합니다.

-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곳입니다. 불빛이 전혀 없는 지성소가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약궤 때문입니다(출 40:38).
- 언약궤에서 구름과 빛과 불의 체험이 있게 됩니다.
-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상

징합니다. 이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구름은 모든 악한 세력을 뽑아내주며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당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광의 구름 또한 매우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세요!

- 빛은 치유의 광선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모든 질병은 어두움입니다. 빛이 질병이 된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내 몸 어딘가에 발할 때 그곳이 점점 불로 변화됩니다. 작은 탁구공만한 불공이 되었다가 어느새 테니스공만한 불로 변화됩니다. 불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 불이 내 몸의 아픈 곳을 지저줍니다. 마치 용접기로 쇠를 녹이듯이 불공이 내 몸의 아픈 곳을 문지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연약한 곳이 강건해집니다. 치유의 광선이 불로 변화되었을 때 치유가 강하게 일어

나는데 불공이 처음에는 어느 특정한 부위에만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는 몸 전체를 빙빙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점점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치유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 이렇게 치유의 광선이 불로 변하여 몸 전체를 빙빙 돌 때에 어느새 가스불처럼 불이 확 달아오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확 피어오를 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당신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이 강하게 체험될수록 당신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바. 언약궤 안에서의 구름과 빛과 불의 능력 체험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성물에 대한 체험도 있습니다.

- 언약궤 내에는 돌판과 지팡이와 향아리가 있습니다.
- 돌판은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환상 중에 돌판에 뭔가 적혀

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돌판에 적혀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천국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로서 이미 죽은 나무이지만 그곳에서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은 환상으로 지팡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것대로 그대로 이뤄질 것이니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천국의 요소입니다. 믿음은 천국의 공기와도 같습니다.
- 향아리에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 향아리는 40년 동안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환상으로 향아리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금이 들어 있기도 하고 쌀이 들어 있기도 하지만 그 향아리에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도 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이 충만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 5. 성령님과 대화 나누기

### 가. 매일 성막기도를 드립니다.

- 성막기도는 쉬지 말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성막기도는 혼자서 해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십시오(마 6:6).

### 나. 성령님과 단둘이서 드리십시오.

- 성막기도는 나와 성령님과의 단둘이서 행해지는 기도입니다.
- 아직 음성과 환상이 안 열린 사람을 위해 성막기도반장의 인도가 필요하지만 음성과 환상이 열린 사람

은 성령님과 일대일로 성막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 성막기도반에서 함께 기도를 하십시오.

- 비록 내가 성령님과 일대일로 성막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성  
막기도반에 참여하는 것은 지혜로  
운 것입니다.
- 왜냐하면 성막기도반장이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며 반원  
들과 함께 영성훈련을 받음으로 혼  
들리지 않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 때  
문입니다.

라. 매일 성령님과 대화 나누기

- 1) 아침 저녁으로 성령님께 문안인사  
드리십시오.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  
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십시  
오.
  - 성령님께 문안인사를 드리십  
시오.
  -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성령님  
께 인사를 드리십시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  
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  
지께서 갚으시리라

2) 하루종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혼자 놔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혼자 일하지 마십시오.
- 성령님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10분 단위, 30분 단위, 1시간 단위 식으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 필요하면 노트에 성령님과의 대화 내용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간직하십시오. 국성연의 영성일지에 스트링을 적으십시오.

3) 모든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 혼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 뭔가를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 성령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 성령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

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성령님과 나누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 6. 음성환상의 장소 알기

가. 뇌에서 보고 듣는다.

- 다니엘은 뇌에서 하나님의 음성  
환상을 듣고 보았습니다(단 4:10).  
한글개정판에서는 '머리 속'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은 뇌와 연관이 있습니  
다.
- 주로 하나님의 음성은 뇌의 가장 깊  
숙한 곳에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에서 듣기도 하며 심지어 배에  
서 듣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  
에서 듣는다고 느껴질 뿐 실상은 뇌  
의 깊숙한 곳에서 듣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환상은 뇌와 이마 사이에  
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 눈  
이 한 가운데로 모여질 수 있는 가  
장 근거리 부분에서 보기도 합니다.  
대략 눈에서 주먹정도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단 4:10]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  
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나. 육적인 활동이 아닌 영적인 활동이다.

-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롬 8:16).
- 하나님의 환상 또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 또한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이며 영안이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단 2:19).
-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왕상 19:11-13).
- 세미한 음성은 작은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소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서 들려진 소리는 오직 예수님만 들으셨습니다. 만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마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단 2: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왕상 19: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왕상 19: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13]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3:16-17).

-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영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은 비록 영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매우 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직 사울만 보여지는 환상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난 정도로만 느꼈을 뿐입니다(행 9:3-4).
- 환상은 사람에 따라 사진같기도 하고 영상같기도 합니다. 또한 칼라로도 보이거나 흑백으로도 보여집니다.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 음성과 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행 9: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행 9:4]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상을 듣고 볼 수 없습니다.

- 상상은 환상과 비슷하지만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속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과 사뭇 비슷하지만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이처럼 상상과 환상, 속으로 하는 말과 하나님의 음성의 차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 요셉은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상과 음성은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마 1:20).
- 이처럼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사람에게 보여진 환상과 음성은 다니엘, 고넬료, 아비멜렉, 솔로몬 등에게 임하셨습니다(단 2:19, 행 10:3, 창 20:3, 왕상 3:5).

라. 깨끗할수록 깨끗하게 보고 듣습니다.

- 처음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열릴 때 다소 희미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선명하게 듣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 환상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나타나

[마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단 2:19] 이에 이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행 10: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창 20: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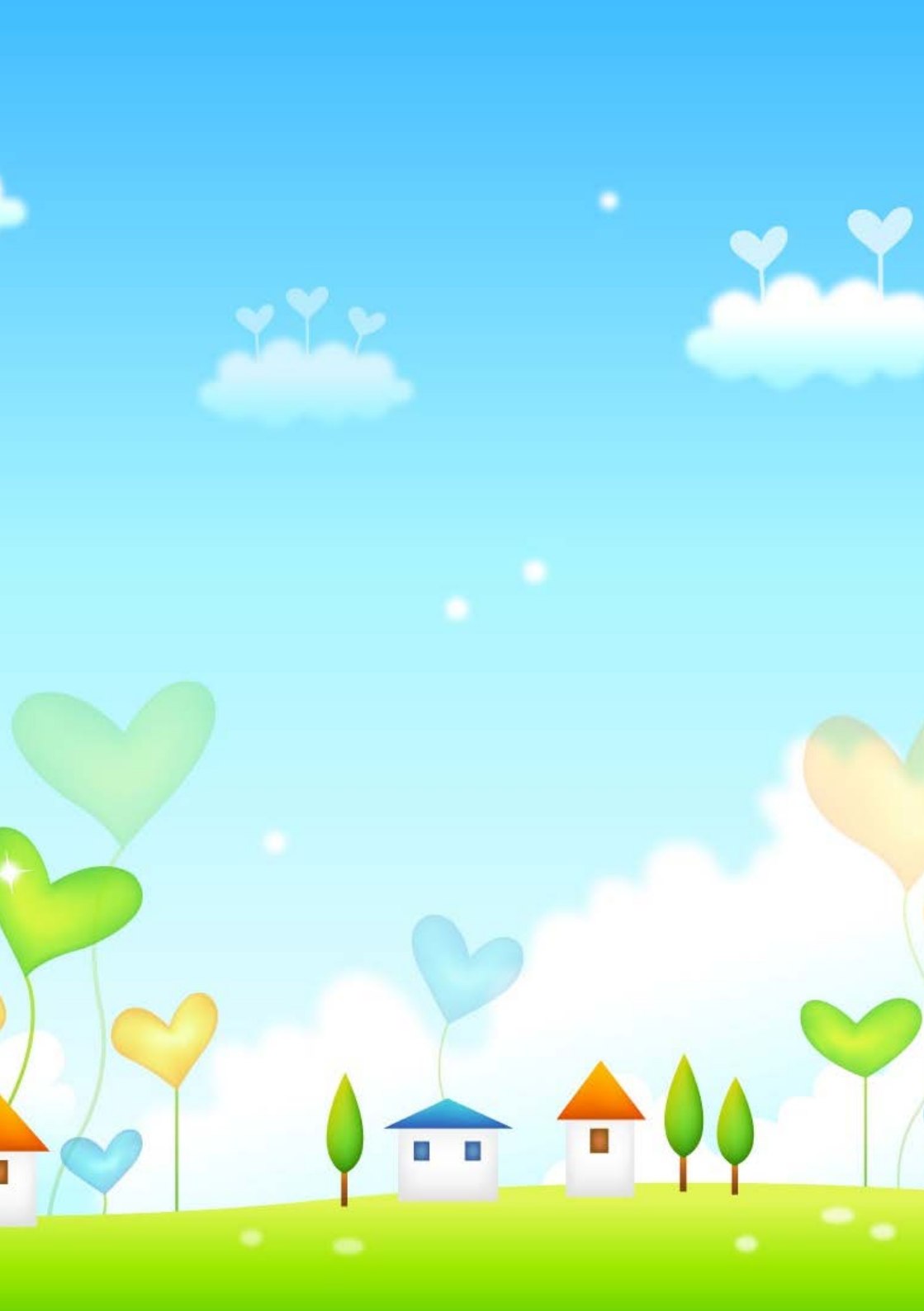
[마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왕상 3: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며 흑백과 칼라로 나타냅니다.

- 환상과 음성이 어떤 때는 희미하지만 어떤 때는 선명합니다. 음성도 잘 안 들렸다가 어떤 날은 매우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보다 선명한 환상과 음성을 보고 듣게 됩니다.
- 정결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 막아서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사 59:1-2).

[사 59:1]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 3 장

/

# 하나님의 구속계획 알기

## 제 3 장 하나님의 구속계획 알기

### 훈련 목적

- \* 언약궤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 \* 언약궤기도를 직접 드러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나타난 증상을 느껴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삶속에 나타난 변화를 깨닫자

###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매일 방언기도를 드린다
- \* 국성연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땃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1.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가.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히 9:27).

- 1)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 별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 2) 이 세상과 이별을 할 때 우리는 낙원과 음부에서 지내게 됩니다(눅 23:43, 눅 16:22-23).
  -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낙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눅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16: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눅 16: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

원에 거합니다. 천국이 임할 때에 낙원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거하게 됩니다. 음부에 거하는 사람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3) 부활 때에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할 것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계 20:13).
- 생명책에 기록된대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계 20:12).
- 선한 자는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지만 악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계 20:14-15).

나. 죽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전 12:7).

- 1) 인간이 죽을 때 영혼과 육이 분리될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 거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의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전 12: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입니다.

- 2)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에 거하게 됩니다(전 3:21).

## 2. 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되십니다(슥 3:17, 히 12:9).

- 1)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거하시지만 영의 아버지는 하늘에 거하십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창 1:26).

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 1)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창 1:28).
- 2)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전 3: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슥 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히 12:9]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롬 5:12).

- 3)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요 3:16).
  -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롬 5:17).
  -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요 14:6, 히 10:20).
- 4) 오직 구원을 받아 천국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계 21:3-4).

### 3. 본향은 무엇인가?

가. 믿음의 선조들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히 11:16).

- 1) 여기서 사용되는 '본향'은 헬라어 <파트리스>로서 '고향' 또는 '본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히 11: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

- 2) 신앙의 선조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닌 천국의 본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  
다(잠 8:22-31).

- 1) 우리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 2) 하나님께서 욥에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욥 38:4-7).
  - 우리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 3)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복중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렘 1:5).

마.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천사와 같습니

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잠 8: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 8:23]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잠 8: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잠 8:25]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 8: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잠 8: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잠 8: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잠 8: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잠 8: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 8: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욥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 38:5] 누가 그 도랑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욥 38:6]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욥 38: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다(마 22:30).

- 1)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 2) 천국은 이 세상의 삶과 다른 곳입니다.

[렘 1: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마 22: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 4. 천지의 변화과정



가. 첫번째 땅(판게아 Pangea) :

- 1)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으셨던 지구이다(창 1장, 요 1장).
- 2) 이 때의 땅은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아 있었다.
- 3) 이 땅에는 에덴동산이 중심이었다(창 2:8).

[창 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나. 두번째 땅(현재 땅):

- 1) 원래 하나로 연결된 땅이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지각의 변동을 받아 땅이 오늘날처럼 오대양 육대주로 나뉘어졌다.
- 2)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빠르게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은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창 7:15).

[창 7:15]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다. 세번째 땅(복천년):

- 1) 복천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계 20:4).
- 2) 첫째부활에 참여한 사람만이 복천년을 누리게 될 것이다(계 20:5).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 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 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 3)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땅이다.
- 4)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마귀의 세력들을 붙잡아 무저갱 속에 집어 넣으신다(계 20:1-3).
- 5) 그리고는 의인들과 더불어 천년동안 이 땅을 다스리신다(계 20:6).
- 6) 복천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 전쟁이 없을 것이다(사 2:4).
  - 지구는 다시 변화되어 에덴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겔 36:35).
  - 사탄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할 수 없음으로 이 땅은 이웃과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할 것이다(계 20:2-3).
  - 사람들은 복천년 기간동안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사 65:23).
  - 사람들은 짐승과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사 65:25).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사 2: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겔 36: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 65: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 사람들은 질병없이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다(사 65:22).
- 사람들은 집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농사를 지으며 풍족하게 먹고 살 것이다(사 65:21).

#### 라. 네번째 땅(천국):

- 1) 복천년이 끝나면 잠시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계 20:7)
- 2) "곡과 마곡"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귀세력을 승리하실 것이다(계 20:8-9)
- 3)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
- 4) 의인과 악인 모두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계 20:12)
- 5)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사 65:22]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사 65: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계 20:7]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계 20: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계 20:14-15).

- 6)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질 것이다(계 21:1).
- 7) 천국에는 거룩한 성이 있는데 하늘 위에서 임하는 것이다(계 21:2). 거룩한 성은 천국 위에 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 8) 거룩한 성은 정육면체의 모양을 띠고 있으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다(계 21:16). 2200km의 정육면체로써 남북한 길이의 두배정도 되는 길이다(남북한의 길이는 약 1,200km, 3000리).
- 9) 거룩한성에는 모두 12개의 진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남북 각각 3개의 문이 놓여져 있다(계 21:13).
- 10) 거룩한성의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각 문의 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써져 있다(계 21:12,14).
- 11)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계 21: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4]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십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명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계 22:1).

- 12) 천국에 거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곳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 영원히 살게 됨을 얻게 될 것이다(계 22:2).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 하나님알기반 교재

초판발행 2017. 2. 6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http://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mailto:inourlove@gmail.com)

# 국제신학교

##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 신학생 모집요강

#### ▶ 사역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 목회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http://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mailto: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http://www.RevivalForChurch.com)